

## 2. 고은, <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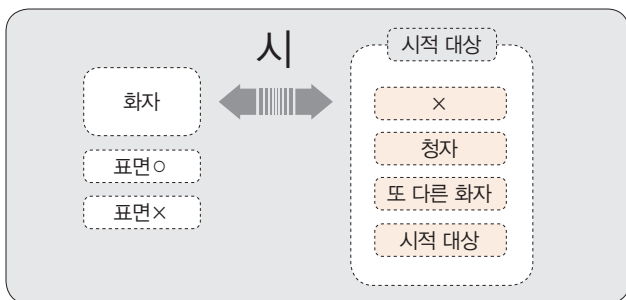
### STEP 1 ' 문제 풀기

1. 적정 시간: ⌚ 5분
2. 본문을 읽는 시간: ⌚ 1분 30초
3. 문제를 푸는 시간: ⌚ 4분
4. 주의사항
  - ①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 또는 × 표시를 하세요.
  - ②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 표시를 하세요. 이때 애매하다고 생각한 선지의 단어를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 ③ 마지막으로 가장 답으로 보아야 할 것을 골라 주세요.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바라보노라. /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온 겨울을 떠돌고 와 /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 눈 내리는 풍경  
 ㉢세상은 지금 목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 보이지 않는 움직임.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내리는 눈 사이로 /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 더미 앞에 /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 고은, <속(續) 눈길>

### 1. 윗글의 작품 구조를 파악해 보자.



### 2. 다음을 읽고 적절하면 ○, 그렇지 않으면 ×를 표시하라.

- ①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 ② 동일한 어미가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자아내고 있다. (○, ×)

### 3.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눈길'은 그동안 '온 겨울을 떠돌'았던 화자의 삶을 포용하는 것이겠군.
- ② '마음속에 처음으로/눈 내리는 풍경'을 마주한 화자는 '설레이는 평화'를 얻고 있군.
- ③ 화자는 '내리는 눈'을 보면서 '대지의 고백'을 듣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군.
- ④ '위대한 적막'을 지키겠다는 것은 '쌓이는 눈 더미'의 힘난함을 극복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겠군.
- ⑤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에서 화자는 '어둠'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군.

###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눈길>은 삶의 허무로 인해 방황하고 고뇌하는 상황에 대한 시인의 성찰을 다룬 작품이지만, 작품 속에는 이미 이러한 허무적 경향을 넘어서려는 화자의 내면적 지향이 나타나고 있다. 화자는 눈 덮인 길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긴 방황과 고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

- ① ㉠ : 현재의 시점에서 화자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있군.
- ② ㉡ : 화자는 그동안 긴 방황의 시간들을 겪어왔군.
- ③ ㉢ : 화자는 명상을 통해 허무를 느끼고 있군.
- ④ ㉤ : 화자는 내적 고뇌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군.
- ⑤ ㉤ : 화자는 내면적 방황을 마치고 고뇌에서 벗어났군.

### 5. ㉤에 나타난 표현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纖細)하고도 /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 ② 마음의 기(旗)는 /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 나에게 원이 있다면 / 뉘우침 없는 일몰(日沒)이 /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 가는 / 그 일이라다
- ③ 가는 뒷잎에 초승달 매달려 애뜻한 밝은 어둠을 / 너 몹시 안타까워 포실거리며 훗훗 목매었느니
- ④ 맑은 피로 가만히 숨 멈추고 얼어있는 / 시린 보릿잎에 얼 굴 대보면 / 따뜻한 피만이 열 수 있고 / 따뜻한 가슴만이 진정 녹을 수 있음을 / 이 겨울에 믿습니다
- ⑤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 위에 / 살아오는 삶의 아픔

STEP 2' 작품 공부하기

○: 화자의 마음을 가리키는 소재.

1 이제 바라보노라.  
 2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는 **눈길**을.  
 3 온 겨울을 떠돌고 와  
 4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바라보노라.  
 1행~4행: 화자는 방향을 끝내고 돌아와  
 눈이 덮인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다.

5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6 눈 내리는 풍경  
 7 세상은 지금 **목념의 가장자리**  
 8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9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  
 5행~9행: 화자는 눈 내리는 풍경을 활용하여  
 내면의 평화를 보여주고 있다.

10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11 보이지 않는 움직임.  
 12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13 내리는 눈 사이로  
 14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15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10행~15행: 화자는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16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17 안에서는 **어둠**이노라.  
 18 온 겨울의 누리 떠돌다가  
 19 이제 와 **위대한 적막**을 지킴으로써  
 20 쌓이는 눈 더미 앞에  
 21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16행~21행: 화자는 오랜 방향 끝에 평화를 얻게 되었다.  
 - 고은, <속(續) 눈길>

※ 작품에 대하여

1. 주제: 방향 끝에 평화를 찾은 화자의 내면
2. 특징:
- ① 종결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다. (예 -노라)
  - ②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예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 보이지 않는 움직임.)
  - ③ 상징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지난 것'은 방향하였던 화자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
  - ⑤ '눈 내리는 풍경'은 마음의 평온을 찾은 것과 관련이 있다.
  - ⑥ '대지의 고백'은 화자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
  - ⑦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에서 화자의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 ⑧ '어둠이노라'의 '어둠'은 내면의 평화와 관련이 있다.

STEP 3' 해설 확인하기

1. 화자(표면 ○), 시적 대상(화자의 마음)
2. ① ○, ② ○  
 ① ○,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에서 역설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 '-노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④  
 '쌓이는 눈 더미'는 눈이 가진 포용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유는 화자의 마음은 이전과 달리 평화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쌓이는 눈 더미'를 '험난함'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① '눈길'은 '지난 것이 다 덮여 있다'는 수식을 고려해 볼 때 떠돌았던 화자의 삶을 포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유는 '눈길'을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②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노라'는 말을 고려해 볼 때, '눈 내리는 풍경'과 같이 연결되며, 화자의 내면이 점점 평화를 찾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③ '내리는 눈 사이로 /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바로 '대지의 고백'이다. 화자는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다. 이 의미는 화자의 내면 평화와 관련되어 있다.  
 ⑤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에서 '어둠'은 화자의 내면이 평화로운 상태임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4. ③  
 ㉞은 '세상은 지금 목념의 가장자리'인데, 고요한 세계를 드러내는 표현일 뿐, 화자가 이를 통해 허무함을 보여주고자 한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이제 바라보노라'라는 말에서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보고 있으므로 가능한 설명이다.  
 ② '온 겨울을 떠돌고 와 여기 있다.'는 말을 고려해 볼 때, 그동안 긴 방향을 했던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에서 알 수 있듯이 내적 고뇌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⑤ '어둠'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고 내적 고뇌가 끝난 평화를 의미하므로 가능한 해석이다.

5. ②  
 ㉞는 '역설적 표현'을 의미한다.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유일하게 ㉡이다.

- 오답피하기**  
 ① '차가운 아름다움'에서 역설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밝은 어둠'에서 역설법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따뜻한 피만이 열 수 있고'에서 역설법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외로운 눈부심'에서 역설법을 확인할 수 있다.

### 3.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STEP 1 ' 문제 풀기

1. 적정 시간: ⌚ 4분 30초
2. 본문을 읽는 시간: ⌚ 1분 30초
3. 문제를 푸는 시간: ⌚ 3분
4. 주의사항
  - ①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 또는 × 표시를 하세요.
  - ②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 표시를 하세요. 이때 애매하다고 생각한 선지의 단어를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 ③ 마지막으로 가장 답으로 보아야 할 것을 골라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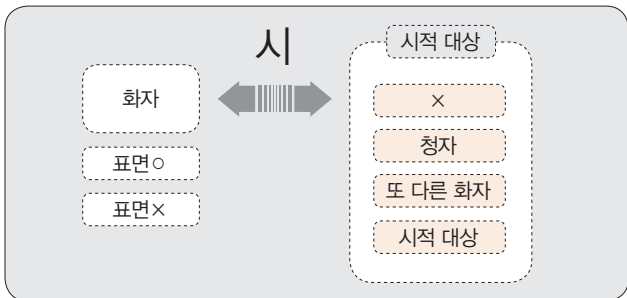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아 /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 솥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댕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 온통 부끄러워지고  
 ┌ 직지사 해우소 /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A] 통덩이처럼 느껴질 때 /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시우쇠: 무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  
 \* 모루: 대장간에서 불에 달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

#### 1. 윗글의 작품 구조를 파악해 보자.



#### 2. 다음을 읽고 적절하면 ○, 그렇지 않으면 ×를 표시하라.

- ①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타나 있다. (○, ×)
- ② '대장간 벽'은 화자가 정체성을 상실하는 공간이다. (○, ×)

#### 3. 윗글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다음 내용 중에서 윗글의 주제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끼리 묶인 것은?

<대장간>	<유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공간 ..... ㉠</li> <li>• 사물을 단련하여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생산적 공간 .....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다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하고 싶은 갈망 ... a</li> <li>• 대상을 현혹하여 지배하고 싶은 욕망 ..... b</li> <li>• 자기 스스로의 매력에 도취되어 살고 싶은 희망 ..... c</li> </ul>

- ① ㉠ - a                      ② ㉠ - c                      ③ ㉡ - a  
 ④ ㉡ - b                      ⑤ ㉡ - c

#### 4. <보기>는 [A]를 모방하여 지은 시구이다. 창작 과정에서 고려했음직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차가운 아스팔트  
 그 위로 하염없이 떨어져 내리는  
 낙엽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불현 듯  
 삭막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자그마한 들꽃이고 싶다.

- ① [A]와 같이, 풍자적 수법으로 화자가 처한 현실을 제시한다.
- ② [A]와 같이, 하강 이미지를 살려서 시의 분위기를 유지한다.
- ③ [A]와 달리, 화자의 개인적 소망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 ④ [A]와 달리, 대조적인 이미지로 화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 ⑤ [A]처럼, 통사 구조를 유지하되 수식어를 사용하여 섬세하게 표현한다.

## STEP 2' 작품 공부하기

- 1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아      ○: 가치 있는 대상  
2 한꺼번에 싸게 사서      △: 무가치적인 대상  
3 마구 쓰다가 / 4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5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6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1행~6행: 화자는 무가치적인 것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7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8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9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7행~9행: 화자는 가치 있는 대상인  
    '털보네 대장간'에 찾아가고 싶어 한다.  
10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11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12 모루\* 위에서 버리고 / 13 솥돌에 갈아  
14 시퍼런 무쇠뉘으로 바꾸고 싶다  
15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16 꼬부랑 호미가 되어  
17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18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10행~18행: 화자는 가치가 있는 대상이 되고 싶어 한다.  
19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 20 온통 부끄러워지고  
21 직지사 해우소 / 22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23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24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25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19행~25행: 화자는 과거의 삶을 반성하며  
    가치 있는 삶을 소망하고 있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시우쇠: 무쇠를 불에 달구어 단단하게 만든 쇠붙이.

\* 모루: 대장간에서 불에 달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

## STEP 3' 해설 확인하기

1. 화자(표면 ○), 시적 대상(대장간)

2. ① ○, ② ×

① ○, 화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의 삶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② ×, '대장간 벽'은 화자가 걸리고 싶은 장소이기 때문에 '화자의 정체성을 상실한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3. ③

<대장간>은 '사물을 단련하여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이곳에서 '나를 달구고', '시퍼런 무쇠뉘'으로 바꾸고 싶다고 자신의 바람을 표출한다. 이런 맥락에서 <유혹>을 읽어야 하는데, 해당 맥락을 고려해 볼 때, 화자가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하고 싶은 갈망'인 a가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a'가 있는 ③이 정답이다.

4. ①

'풍자적 수법'이라면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과 조롱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그러한 내용이 없다.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신이 바라는 현실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 오답피하기

② '하강 이미지'를 '떨어져 내리는'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모두 나타나 있다.

③ <보기>는 '삭막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싶다는 말에서 개인의 소망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는 '나는 ~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 소망에 머물러 있다.

④ <보기>에서 화자는 자신의 모습을 '낙엽'과 대조되는 '들꽃'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A]에서는 자신을 '똥덩이'에 비유할 뿐, 이와 대조되는 다른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A]와 <보기> 모두 문장 구조가 비슷하다. 다만, <보기>가 좀더 수식어를 사용하여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삭막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에서 확인이 된다.

## ※ 작품에 대하여

1. 주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2.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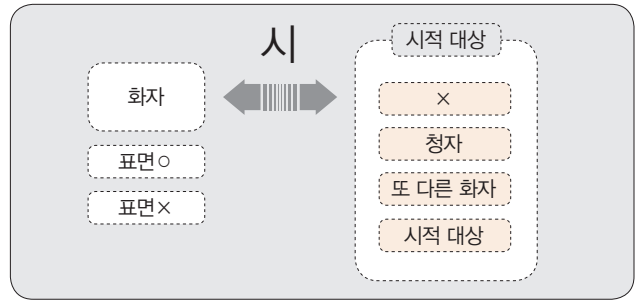
- ① 특정 어구가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예 -고 싶다)
- ② 대비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현대아파트 vs. 털보네 대장간)
- ③ 구체적인 지명을 드러내고 있다. (예 현대 아파트, 털보네 대장간)
- ④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예 플라스틱 물건처럼 등)
- ⑤ 두 세계의 대립이 나타나 있다. (부정적인 세계 vs. 긍정적인 세계)
- ⑥ '무쇠뉘'와 '꼬부랑 호미'는 가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 4. 김광규, <상행>

## STEP 1 ' 문제 풀기

1. 적정 시간: ⌚ 5분 30초
2. 본문을 읽는 시간: ⌚ 1분 30초
3. 문제를 푸는 시간: ⌚ 4분
4. 주의사항
  - ①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 또는 × 표시를 하세요.
  - ②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 표시를 하세요. 이때 애매하다고 생각한 선지의 단어를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 ③ 마지막으로 가장 답으로 보아야 할 것을 골라 주세요.

### 1. 윗글의 작품 구조를 파악해 보자.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B]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다오

[C]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나  
옛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D]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다오

[E]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 김광규, <상행(上行)>

###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토속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취를 드러내고 있다.

###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상의 방식을 통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수미상응의 구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반어적 어조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⑤ 화자의 정서를 특정 사물에 투영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4. 윗글의 시상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제시하여 시상을 시작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이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청각적 이미지를 대비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전환됨을 나타내고 있다.
- ④ [D]에서는 상황을 가정하여 연속적으로 제시하여 시적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서는 '너'에서 '너'와 '나'로 대상을 확장하여 시적 상황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있다.

## 5. &lt;보기&gt;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1970년대는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했던 시기였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농촌은 외형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지만 무분별한 성장 추구로 인해 심각한 환경 오염에 물들어 갔으며, 전시 행정에만 급급했던 '지붕 개량화 사업'과 같은 정책들은 실질적인 서민들의 삶과 유리되어 있었다. 또한 사람들은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자세를 잃어 버렸으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소시민적 삶에 매몰되어 갔다.

- ①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은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과는 분리된 채 전시 행정에만 급급했던 결과물이겠군.
- ② '흥미 있는 주간지'는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세속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폴벌레의 울음'은 환경 오염을 방지한 채 경제 성장만을 우선시하던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낸 부작용이겠군.
- ④ '맥주나 콜라'는 당시 사회가 내포하고 있던 많은 문제점들을 포괄하여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겠군.
- ⑤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는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당대 사람들의 소시민적 삶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4. 김광규, <상행>

### STEP 2' 작품 공부하기

- 1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 부정적인 대상들  
 2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3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4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5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6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7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8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9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10 ~~홍마~~ 있는 ~~주잔~~지를 보며  
 11 고개를 끄덕여다오  
     1행~11행: 화자는 차창 밖과 안의 풍경을 언급하고 있다.  
 12 ~~농약으로 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13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14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15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16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17 옛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18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19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12행~19행: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즐거운 여행을 해 달라고 말한다.  
 (이 말의 숨은 의도는 부정적인 현실에 관심을 가져 달라이다.)  
 20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21 놀라울 때는 다만  
 22 <아!>라고 말해다오  
 23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24 침묵이 어색할 때는  
 25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26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27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28 이야기해다오  
 29 너를 위하여  
 30 그리고 나를 위하여  
     20행~30행: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에 침묵하는 삶을  
     살아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 말의 숨은 의도는 침묵하지 말고 말해 달라이다.)  
 - 김광규, <상행(上行)>

### ※ 작품에 대하여

1. 주제: 산업화와 소시민에 대한 비판
2. 특징:
  - ①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였다. ('~해 다오'를 '~하지 말아 다오'로 읽어야 한다.)
  - ② 특정 어미를 반복하여 드러내고 있다. (예 -다오)
  - ③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예 풀벌레의 울음 등)
  - ④ 구체적인 시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 (예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
  - ⑤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예 얼마나 경쾌하냐)
  - ⑥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등에서 소시민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 ⑦ 8행과 9행에는 근대화와 관련된 모습이 드러난다.
  - ⑧ 15행과 16행도 역시 근대화와 관련된 모습이다.
  - ⑨ 25행~27행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의미하며, 화자는 이런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낼 원하고 있다.

## STEP 3 '해설 확인하기'

1. 화자(표면 ○), 시적 대상(청자(=너))

2. ②

'풀벌레의 울음', '전파 소리', '듣기 힘든 소리'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확인하고 있다.

## 오답피하기

- ① 해당 작품에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해당 작품에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유사하거나 같지 않으므로 수미상관의 방법이 나타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 ④ 해당 작품에는 하강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상행 열차, TV, 심야 방송, 확성기, 고속도로, 자동차 소리, 맥주, 콜라, GNP, 증권 시세' 등을 고려해 볼 때, 토속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말하기 어렵다.

3. ③

'반어적 표현'으로 서술어가 구성되어 있다. 즉, '고개를 끄덕이지 말라, 즐거운 여행을 하지 말라, 이야기 하지 말라'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반어법'으로 읽어야 한다.

## 오답피하기

- ① 회상의 방식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과거'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작품에는 없다.
- ② 전반적으로 앞뒤 부분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수미상용 구조라 할 수 없다.
-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하려면 '한 장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내용은 화자가 의도하는 내용이 있고 소재를 바꾸어 가며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의 이동'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 ⑤ '감정 입입'이 없다. 어떤 사물에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투영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4. ③

'화자의 태도'가 전환된 부분은 없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두드러진 작품이다.

## 오답피하기

- ①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에서 구체적인 시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오징어, 화투판' 등에서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화자가 비판하는 모습이다.
- ④ '놀라울 때, 긴 말을 하고 싶으면'에서 상황을 가정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화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이다.
- ⑤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에서 더 나아가 '나'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우리 모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5. ④

'집약적으로 제시'한다는 말은 '핵심'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맥주와 콜라'는 당시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이므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 오답피하기

- ① <보기>에서 '전시 행정에만 급급했던 지방 개량화 사업과 같은 정책'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선지이다.
- ② '흥미 있는 주간지'는 <보기>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자세를 잃어 버렸다는 태도와 연결되므로, 해당 구절은 진지한 성찰 없이 세속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무분별한 성장 추구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에 몰들어 갔다.'는 말이 있다. '풀벌레의 울음'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달라는 말을 고려해 볼 때,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 낸 부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는 당시의 경제 성장과 관련된 어휘인데, 이는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당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므로, '소시민적'이라 할 수 있다.



# 1. 정서, <정과정(鄭瓜亭)>

## STEP 1 ' 문제 풀기

1. 적정 시간: ⌚ 5분 30초
2. 본문을 읽는 시간: ⌚ 1분 30초
3. 문제를 푸는 시간: ⌚ 4분
4. 주의사항
  - ①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 또는 × 표시를 하세요.
  - ②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 표시를 하세요. 이때 애매하다고 생각한 선지의 단어를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 ③ 마지막으로 가장 답으로 보아야 할 것을 골라 주세요.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숯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돌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녀시라도 님은 혼디 녀져라 아으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몰헛마리신더\*  
 슬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鄭瓜亭)>

- \* 베키더시니: 우기던 사람이.
- \* 몰헛마리신더: 못 사람의 헛뜯는 말이로다.
- \* 슬웃븐더: 슬프구나.

- ① 당신의 마음을 천지신명만큼은 반드시 아실 것입니다.
- ② 차라리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단념하고 새 출발을 하세요.
- ③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 ④ 혹시 자신에게 잘못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 3. 윗글의 화자와 정서나 태도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님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신고 빈 배 저어 오노라 - 월산대군
- ② 내 일 망녕된 줄 나라 하여 모를 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아리소서. - 윤선도
- ③ 천만 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  
 내 마음 돌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갈아야 울어 밤길 예눗다. - 왕방연
- ④ 수양산(首陽山) 바라보며 이제(夷齊)를 한(恨)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採薇)도 하는 것가.  
 비록에 푸새엿 것인들 그 뉘 땅에 났나니. - 성삼문
- ⑤ 홍망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도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원천석

##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모두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 ③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 ④ 대구와 대조를 통해 울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의문문을 사용하여 말을 거는 듯한 효과를 내고 있다.

## 2. <보기>의 화자가 <정과정>의 화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다냐.  
 이시라 하더면 가라마는 제 구태어  
 보내고 그리는 情(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 황진이 -

## 4. <보기>는 ㉠에 대한 비평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접동새는 우리의 전통적인 시가(詩歌)에 많이 쓰인 새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아니잖아. '참새' 나 '까치'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겠어.

- ① 그렇게 바꾸면 화자의 고귀한 지위를 표현할 수 없게 돼.
- ② 그러면 화자의 성품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
- ③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면 너무 상투적 이잖아.
- ④ 흔한 새로 하면 오히려 참신한 이미지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
- ⑤ 그러면 한(恨)의 이미지가 사라져서 시 전체의 의미가 약 화되잖아.

## STEP 2' 작품 공부하기

※ 해당 내용은 앞에 수록된 '주요 작품 정리'를 참고해 주세요!

※ 다음 원문을 보고 다시 해석해 봅시다!

내 님플 그리스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숯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츨르신 들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녀시라도 님은 혼딕 녀져라 아으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물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물헛마리신데  
 슬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鄭瓜亭)〉

## STEP 3' 해설 확인하기

## 1. ④

해당 작품에는 대구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대조는 '화자와 자기를 헐뜯는 못사람'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조는 나타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오답피하기

- ① 화자는 입을 그리워하고 그 곁에 가고 싶어 한다.
- ②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임이 다시 자신을 사랑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곧 임과의 재회를 소망한다 말할 수 있다.
- ③ 화자는 임과 헤어진 현 상황을 슬퍼하고 있다. 특히 '슬웃븐더'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⑤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에서 의문문을 활용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청자인 임에게 하는 말로 이해가 되므로, 말을 거는 듯한 효과도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2. ④

화자는 자신에게는 과실도 허물도 전혀 없으며, 못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 임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보기〉의 화자는 떠나는 입을 붙잡지 않고 보내놓고는 그 입을 그리워하는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정과정〉의 화자에게 〈보기〉의 화자가 들려 줄 말로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지를 반성해 보라는 정도의 내용이 될 것이다. 즉, '자신을 책망'하다는 태도가 포인트이며, 이에 따른 답은 ④이다. (출제자 의도가 강한 문제이다.)

## 오답피하기

- ① 해당 말은 이미 〈정과정〉에서 했으며, 〈보기〉에서 한 말이 아니다.
- ② 〈보기〉에서 새 출발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지 않다.
- ③ 〈보기〉에서 입을 기다리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 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다고 말하기에는 〈보기〉에서 '내가 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

## 3. ②

〈정과정〉의 화자는 임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자신의 충정을 헤아려 다시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②의 화자도 임에게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임이 알아서 헤아려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 오답피하기

- ① 가을 강가의 한가로운 정취를 노래하고 있다.
- ③ 이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④ 굽힘 없는 절개를 노래하고 있다.
- ⑤ 망한 고려의 궁궐터를 보면서 느끼는 덧없음(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다.

## 4. ⑤

'접동새'는 주로 '한'을 노래하는 작품에 많이 쓰인다. 이 작품에서도 '접동새'는 '한'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접동새'를 '참새'나 '까치'로 바꾸면 '한'의 정서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오답피하기

- ① 화자의 고귀한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 접동새를 쓴 것이 아니다.
- ② 화자의 성품의 무게가 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주변에서 모두 흔히 볼 수 있는 새들이다.
- ④ 접동새, 까치, 참새 모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새이지만, 유독 접동새에 주목한 이유는 '한의 이미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 2. 작자 미상, 〈서경별곡(西京別曲)〉

### STEP 1 ' 문제 풀기

1. 적정 시간: ⌚ 3분 30초
2. 본문을 읽는 시간: ⌚ 1분 30초
3. 문제를 푸는 시간: ⌚ 2분
4. 주의사항
  - ①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 또는 × 표시를 하세요.
  - ②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 표시를 하세요. 이때 애매하다고 생각한 선지의 단어를 정확하게 체크하세요.
  - ③ 마지막으로 가장 답으로 보아야 할 것을 골라 주세요.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고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논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제1연>

[A] {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긴히썬 아즐가 긴히썬 그츠리잇가 나논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즘문 히를 아즐가 즘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나논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제2연>

대동강(大洞江) 아즐가 대동강(大洞江) 너븐지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빅내여 아즐가 빅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립난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널빅에 아즐가 널빅에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大洞江) 아즐가 대동강(大洞江)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빅 타 들면 아즐가 빅 타 들면 것고리이다 나논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제3연>  
 - 작자 미상, 〈서경별곡(西京別曲)〉

### 1. 윗글을 감상하는 관점이 다른 것은?

- ① '서경(西京)'을 통해서 작품의 창작 시기를 짐작해 본다.
- ② '괴시란디'에서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해 본다.
- ③ '질삼뵈 브리시고'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추리해 본다.
- ④ '여히므론'과 '괴시란디'를 통해 사랑을 대하는 현대인의 태도를 반성해 본다.
- ⑤ '좃니노이다'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던 시대 상황을 상상해 본다.

### 2. 윗글의 시어 및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질삼뵈'는 화자가 여성이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② '우리곰 좃니노이다'는 화자가 이별을 거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네 가시 립난디 몰라셔'는 음란한 세태를 비판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 ④ '샤공'은 화자와 임의 사랑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 ⑤ '빅 타 들면 것고리이다'에는 미래에 나타날 임의 행동을 경계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 3.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서경별곡>의 제2연에서 여음구를 제외한 부분은 당시 유행하던 민요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으로, <정석가>에도 동일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고려 시대의 문인 이 제현도 당시에 유행하던 민요를 다음과 같이 한시로 옮긴 적이 있다.

[B] {  
 비록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縱然巖石落珠璣  
 끈은 진실로 끊어질 때 없으리. 纒縷固應無斷時  
 낭군과 천 년을 이별한다고 해도 與郎千載相離別  
 한 점 붉은 마음이야 어찌 바뀌리오? 一點丹心何改移

- ① [A]와 [B]에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군.
- ② [A]에서는 '신'을, [B]에서는 '붉은 마음'을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하였군.
- ③ [A]와 [B]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는군.
- ④ [A]와 [B]를 보니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군.
- ⑤ [A]와 [B]를 보니 여음구의 사용 여부에 차이가 있군.

## STEP 2' 작품 공부하기

※ 해당 내용은 앞에 수록된 '주요 작품 정리'를 참고해 주세요!

※ 다음 원문을 보고 다시 해석해 봅시다!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마르느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르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르른 아즐가 여히르른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제1연>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예 다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긴히썸 아즐가 긴히썸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즘른 히를 아즐가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信)잇든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제2연>

대동강(大洞江) 아즐가 대동강(大洞江) 너븐지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빅내여 아즐가 빅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널빅예 아즐가 널빅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大洞江) 아즐가 대동강(大洞江) 건넌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빅 타 들면 아즐가 빅 타 들면 것고리이다 나눈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제3연>  
 - 작자미상, 〈서경별곡(西京別曲)〉

## STEP 3' 해설 확인하기

## 1. ②

유일하게 ②만이 내재적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외재적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 오답피하기

- ① '작품의 창작 시기'는 작품 자체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 ③ '작가의 생각'을 고려한 것을 보아 표현론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 ④ '반성해 본다'는 성찰적 태도가 있는 것을 보아 효용론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 ⑤ '여성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던 시대 상황'을 고려한 것을 보아 반영론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 2. ③

'네 가시 림난디 몰라셔'는 '네 아내가 바람난 줄 몰라셔'라는 의미로, 자신의 임을 배에 싣고 떠나는 사공에게 하는 욕이자 원망이다. 자신의 아내나 잘 챙기면 되지 자신의 임을 왜 챙기냐는 의도에서 비롯된 말이다. 따라서 음란한 세태를 비판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은 상황적 해석이 불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 오답피하기

- ① '질삼뵈'는 '질삼베'를 의미하며, 이는 여성적 화자인 것을 증명하는 소재이다.
- ② '우리곰 좃니노이다'는 '울면서 임을 좃는다'는 의미인데, 이는 화자가 임과 헤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적극적 행동으로 해석된다.
- ④ '샤공'은 임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한 인물로, 화자의 원망의 대상이자 임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자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빅 타 들면 것고리이다'에서 꺾을 그 대상은 다음 아닌 '꽃'인데, 이 꽃은 미래에 나타날 임의 행동에 대응하려는 화자의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해석이 되며, 화자는 꽃을 경계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3. ②

[A]의 '신'과 [B]의 '붉은 마음' 모두 임을 향한 화자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상징한다. 그런데 '바위'는 모두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장애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화자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 대상으로 형상화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피하기

- ① [A]와 [B]에서 '구슬'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긴'이나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A]에서 '신'과 [B]에서의 '붉은 마음' 모두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며 화자가 이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④ [A]와 [B] 모두 '구슬'과 '끈'의 관계를 바탕으로 화자의 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 즉 고려가요와 한시로 수용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로 판단된다.
- ⑤ [A]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라는 여음구가 있지만, [B]에는 없다.